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3>

무념무심으로 한 세상 살라

학승이 질문했다.
"마음이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누구를 헤아리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자기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두 개는 없다."

問 在心心不測時如何
師云 測阿誰
學云 測自己
師云 無兩箇

마음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마음은 언제나 하나이다. 마음이 작용할 때는 작용하는 마음이 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이 이미 헤아리는 작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음이 보는 작용을 일으킬 때 마음은 보는 작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본단 말인가. 그래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요한 마음이 될 수는 있다. 열반적정(涅槃寂靜)은 마음이 자신의 본질에 회귀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함을 떠나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고요한 마음은 사라지고 작용하는 마음으로 변한다.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가 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 된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주인공의 뜻에 따라 부처와 중생을 넘나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둘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조주 스님은 "네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마음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겉이나 끝(邊表)을 볼 수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은 맑은 물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학승이 말했다.
"맑은 물병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매우 훌륭한 '겉이나 끝이 보이지 않음'이로다."

問 不見邊表時如何
師指淨甁云 是什麽
學云 淨甁
師云 大好不見邊表

몸은 병(甁)이고 마음은 물(水)이다. 몸은 청정하지만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면 병은 탁한 색을 낸다. 몸은 청정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해도 병은 탁한 색을 낸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맑은 병에 맑은 물이 담겨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병과 물의 구분은 없어지고, 투명한 그곳에 병과 물이 있는 지조차도 모르게 된다. 가히 이렇게 된다면 매우 훌륭한 '겉이 보이지 않음'이다.

수행은 몸과 마음을 맑히는 작업이다. 몸과 입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청정한 몸이 되고 마음에 욕심이나 잡념이 없어야 청정한 마음이 된다. 이것이 불조(佛祖)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삶의 방식이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고 말하면서 온갖 잡생각을 일으키고, 몸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결국 허망한 육신 아닌가하고 죄를 합리화 시키고 다닌다면 이런 사람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인에 불과하다. 선사라면 이런 사람에게 단번에 철퇴를 내리칠 것이다.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헤아리지 말라
있는 그대로 살아야 근원으로 돌아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헤아린 즉 어긋난다."

問 如何是歸根
師云 擬即差

불교는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본래 자성은 청정하고 깨끗하니까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근원에 돌아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조주 스님은 마음이 그렇게 헤아리는 것 자체가 본질을 등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별 다른 것이 없다. 헤아리지 말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특별하게 수행하거나 굳이 생활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다만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헤아리는 것을 중지하고 무심으로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몸은 일하지만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높고 낮음이 없고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어야 한다.

복을 지으면 복이 오고 악을 지으면 악업이 몰려오는 법이다. 어려움이 몰려온다면 그 또한 나의 업보이다. 기쁨이 온다면 그 또한 나의 선업 결과이다.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즐거움도 받아들이면서 무념무심으로 한 세상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언구(言句)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독탈(獨脫)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언구를 떠난 것이 독탈이야."
학승이 말했다.
"조금 전에 아무도 저를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하여 여기에 왔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어찌 가려내지 못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이미 낱낱이 가려내었어."

問 不離言句如何得獨脫
師云 離言句是獨脫
學云 適來無人教某甲來
師云 因什麽到此
學云 和尚何不揀出
師云 我早箇揀了也

학승이 조주 스님을 예방한 것은 누가 가라고 말[言句]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간 것이다. 학승은 조주 스님이 말한 대로 학승 스스로 언구를 벗어난 독탈의 행을 행했다고 조주 스님에게 맞장구를 친 것이다.

학승이 어찌 가려내지 못하느냐고 반문한 것은 되레 조주 스님을 시험해 보는 말로 대답한 것이다. 소위 막고 찌르는 것을 동시에 한 전형적 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문답 말미 조주 스님의 대답도 모두 일점 흠을 남겼을 뿐이다.

만일 본 납자에게 무엇으로 인해 여기에 왔는가하고 묻는다면, "오늘은 11월 19일입니다"하고 대답할 것이고, 또 학승이 어찌하여 가려내지 못하느냐고 묻는다면, "흠결이 생겼구나"하고 말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㉔
고봉원묘선사선요(高峰原妙禪師禪要)

생사일대사 풀려면 화두 들라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는 송대 말기 원대 초기의 선사로서 남송 가희 2년 무술년(1238)에 소주(蘇州) 오강현(吳江縣)에서 출생했다. 임제종 제18세이고 양기파의 제11세에 해당한다. 속성은 서(徐)씨이고 휘(諱)는 원묘(原妙)이며 호는 스스로 고봉(高峰)혹은 서봉(西峰)이라 했고 고불(古佛)이라 불렸다.

15세(1252) 때 교종 사찰인 가화현 밀인사에서 출가하고, 16세 때 구족계를 받았다. 18세 때 천태교학을 배웠다. 이후 20세 때 정자사(淨慈寺)에 들어가 단교묘륜(斷橋妙倫)에게 참문하고, 22세 때 3년 기한을 정하고 단교화상에게 법을 청하자 단교는 "태어날 때에는 어디에서 오고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가는가"라는 화두를 참구하게 했다.

고봉원묘(1238~1295)

이후 북간탑(北磵塔)으로 설암조흠을 참문해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했고,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받았다. 24세 때 삼탑각(三塔閣)에서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인가"의 화두를 타파했다. 25세 때 강심사(江心寺), 국청사(國淸寺), 설두사(雪竇寺) 등을 유행했다. 28세 때 다시 설암선사를 참문했다. 29세 때 임안(臨安) 용수사(龍翳寺)로 옮겨 5년이 지난 어느 날 밤 도반이 목침을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에 활연히 의단을 타파했다.

42세 때 천목산 사자암(獅子庵)으로 옮겨 사자암 서쪽 장공동(張公洞)에 토굴을 지어 사관(死關)이라 내걸고 입적할 때까지 15년 동안 이곳을 나오지 않았다. 이곳을 찾아오는 납자들에게 삼관(三關)으로 제접했다. 1287년 설암화상이 입적하자 그 법을 이었다. 50세(1291) 때 운부(運副), 학사(鶴沙), 구정발(瞿霆發) 등이 땅을 보시해 사자암과 10리쯤 떨어진 곳에 대각선사(大覺禪寺)를 건립했다. 58세(1295) 때 명대 초기 조옹(祖雍)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임종게를 설했다.

태어나서 사관에 들어온 적도 없고/
죽어서 사관을 벗어난 적도 없다네/
무쇠뱀은 바다 밑을 뚫고 들어가고/
또 수미산 정상을 쳐서 무너뜨리네//

사법제자로 중봉명본(中峰明本), 단애요의(斷崖了義), 포납조옹(布衲祖雍), 공종이가(空中以假) 등이 있다.

고봉의 〈선요(禪要)〉는 그 법어집에 해당하는데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 또는 〈고봉원묘선사선요(高峰原妙禪師禪要)〉를 줄여서 부른 명칭으로 송말 원초의 고봉원묘의 법문을 모아 놓은 설법집이다. 거사 홍교조(洪喬祖)가 초록하고 편찬해 〈선요〉라는 명칭을 붙이고, 시자인 지정(持正)이 기록했으며, 고소산(姑蘇山) 영중사(永中寺) 명본(明本)이 판에 새겨 널리 세상에 전했다.

〈선요〉는 29단 61편의 법어로 구성돼 있다. 주제는 개당보살, 시중, 결제 및 해제 법어, 소참, 만참, 신옹거사 및 직옹거사에게 해준 법문, 앙산노화상에게 드리는 편지 등 총 29단의 법어는 주로 참학자가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해결을 위해 화두참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화두참구에서 대신근·대의문·대분지 등 마음의 자세 및 그 차례와 향상일로(向上一路)의 깨침에 대한 것을 고봉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 설법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대혜종고의 〈서장〉과 더불어 간화선수행의 지침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봉은 다음과 같은 실중삼관(室中三關)으로 제자를 제접했다.

허공의 태양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째서 조각구름에 가리우는가.

모든 사람의 그림자는 늘상 곁에 붙어 있는데 어째서 밟을 수가 없는가.

온 산하대지가 불구덩이인데 어떤 삼매를 터득해야 불길에 타지 않는가.

실중은 실내(室內)의 뜻인데 일반적으로 조실(祖室) 내지 방장실(方丈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조실 혹은 방장과 그곳에 참문하는 학인 사이의 비밀스런 설법 및 인가 등을 상징하는 성격이 강하다. 삼관(三關)은 세 가지 문제 곧 화두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제자의 답변을 통해 그 제자의 수준 및 수행의 진척 등을 점검하는 행위로서 삼구(三句)와 마찬가지이다.

〈선요〉의 판본으로는 고소산 영중사 명본이 1294년에 출간한 것이 초간본이다. 현재 만속장경 수록본은 명 만력 27년(1599)에 영은홍례(靈隱弘禮)가 중재(重梓)한 것으로 운서주굉의 서문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타 〈호주쌍계암법어〉, 〈항주서천목산사자선사법어〉, 염고, 송고, 법어의 보유편, 게송, 2종의 행장, 탑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덕기사본(1399)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조선 중기 이후 30여 종에 이르는 판본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크게 유행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중생제도를 위한
덕운스님의 무료 대특강

■ 강 사 : 덕운 스님 (중국의사)
■ 내 용 :
① 사 주 명리학 :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정확히 이해하므로 앞으로 오는 시간들에 대한 대비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한다.
② 직장인 경전반 : 반야심경 천수경을 비롯한 불경에 대한 교리강좌를 통해 당신의 마음 수행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③ 응 급 침 뜸 반 : 불자의 건강은 불자가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침뜸의 기초부터 응급대처방법까지 총망라에서 안내한다.
■ 날 짜 : 12월 10 일부터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활인사 (사당역 11번출구 5분거리)
■ 연락처 : 02-3487-2311

시 간	금	토	일
오후 2시~5시	사주 명리학	직장인 경전반	응급 침뜸반

강의실 사정상 각반은 선착순 30명만 가능합니다.
사전예약 요망합니다.
◆ 3개월 완성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